

도시기록화 사례연구 :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동의 근현대 선교사를 중심으로*

A Case Study on the Urban Documentation : Centers on the modern missionary of Yangrim-dong area in Nam-gu, Gwangju

여진원(Jin-Won Yeo)**
장우권(Woo-Kwon Chang)***

〈목 차〉

- | | |
|------------------|-------------------|
| I. 서론 | 2. 광주 양림동의 역사적 조명 |
| II. 이론적 고찰 | 3. 기록화 기획 및 분류 |
| 1. 도시의 정의와 구성요소 | 4. 기록의 수집 및 생산 |
| 2. 도시 재생과 도시 기록화 | 5. 기록의 활용 |
| III. 도시기록화 사례 | IV. 결론 |
| 1. 도시 기록화의 대상 선정 | |

초록

이 연구는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동의 도시기록화를 위한 사례연구이다. 이를 위하여 도시기록화 대상 대한 이론적 고찰과 도시재생 측면에서 양림동에 관련된 기록물들을 수집·조사하여 이를 분석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광주광역시 남구 방림동지역의 역사·문화적 사실을 배경으로 '선교'를 주제로 설정하여 기록화 사례를 제시하였다.

키워드: 로컬리티 기록화, 도시재생, 도시기록화, 도시아카이브, 도시 기록화 사례, 양림동

ABSTRACT

This research is a case study on the urban documentation focused on the modern missionary of Yangrim-dong area in Nam-gu, Gwangju. For this, the city of Theoretical Study on the documentation and records related to, Yangrim-dong analyze the collection, investigation of this. Urban archiving was done on Yangrim-dong area in Nam-gu, Gwangju, where the Western missionary activities were active. The "history of city" was combined with "mission" and the cultures related to Yangrim-dong, which was then used as a theme to suggest the archiving plan.

Keywords: Documenting locality, Urban regeneration, Urban documentation, Urban archive, Urban archiving plan, Yangrim-dong

* 이 글은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중 일부를 수정한 것임

** 아시아문화전당 기록연구사(yeopo_81@hanmailnet) (제1저자)

***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wk1961@jnu.ac.kr) (교신저자)

•논문접수: 2016년 2월 20일 •최초심사: 2016년 3월 3일 •게재확정: 2016년 6월 23일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7(2), 387~416, 2016. [<http://dx.doi.org/10.16981/kliss.47.201606.387>]

I. 서론

도시는 우리들의 삶의 공간으로서 이 공간에서 다양한 활동과 행위가 이루어지며 순간의 역사가 지배한다. 쌓이지 않는 순간의 역사가 공간을 지배하면 도시는 고유의 정체성을 상실 한다. 도시의 기억에는 역사와 장소, 그리고 시민들의 삶이 담겨 있다. 도시의 죽음은 그 기억의 상실을 의미한다. 도시에서 현재적 가치만이 의미를 가질 때 시간은 동질화된다. 도시에서 시간이 동질화되면 물리적 공간만 남는다. 즉, 시간의 흔적이 사라진 공간만 남는다는 이야기이다. 공간에서 시간이 동질화된다는 것은 공간에 담긴 과거의 기억, 흔적, 역사 등의 가치가 제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도시의 기록이 필요한 이유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역사의 복원과 보존이다. 인류의 역사는 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각 시대마다 다른 문화를 이루게 했던 인간의 사상과 이론은 항상 문화유산을 도시에 남겼다. 많은 학자들은 각 시대의 역사적 사건이나 유적에 감춰진 비밀을 밝히기 위해 도시에서 자료, 증거, 흔적들을 찾아 분석하고 연구했다. 역사학자, 인류학자들이 역사를 정확히 알기위해 노력하는 이유는 조상들이 만들어놓은 옛 도시의 시대적 배경, 환경, 사회적 요인 등을 이해해야만 현재를 올바로 이해하고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테오도르 폴 김 2009, 123). 둘째, 도시의 경제적 수익 창출이다. 최근 도시경제의 부진과 재정난 등으로 인한 문제가 일어나고, 도시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지역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하여 차별화된 도시경영 전략의 일환으로 도시브랜드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도시의 강점을 부각시키는 영역을 기록화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예를 들면, 멋진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찾고 싶은 도시 등이다. 도시를 평가하는 기준은 다양하지만, 사람들이 선호하는 도시들은 이미 이러한 브랜드로서 경쟁력을 갖춘 도시들이다. 도시브랜드는 도시의 부(富)와 발전에 영향을 미치며,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다시 말해 도시아카이브는 사람들로 하여금 특정 지역 또는 특정 지역 문화의 가치를 식별하고, 다른 지역이나 지역 문화를 구별하도록 의도된 기호 등의 상징 체계, 즉 도시의 신화를 창출하기 위한 기획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도시재생에 있어서의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최근 도시에서 급속히 나타나는 확장에 따라 나타나는 기존 시가지의 노후 쇠락으로 도심공동화(都心空洞化)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도시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도시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 많은 도시에서 도시재생(都市再生)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도시아카이브는 도시를 기록화하면서 도시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그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창출함과 더불어 시민들에게 보다 수준 높은 삶의 질을 보장하는 개발의 틀을 마련해 줄 수 있다. 넷째, 도시 발전과 미래도시 계획에 대한 청사진 제시다. 도시정체

성의 중요성이 지적되는 배경은 각각의 도시와 지역이 당연히 보유하고 있는 고유한 특성과 계획이나 디자인 단계에서 소홀히 되어 획일적이고 매력 없는 도시공간을 창출하여 왔던 데에 있다. 이것은 도시의 계획과 디자인이 본래 살아있는 것으로서 취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능이나 형태에 편향되어있다는 점과 생태계를 기초로 한 총체적인 환경체로서 창출되어야 할 도시공간의 질적 측면이 그다지 배려되지 않았든 점에 기인한다(계기석 외 2001, 4).

이 연구는 광주광역시 남구 방림동지역의 역사·문화적 사실을 배경으로 근·현대 '선교'에 대한 기록화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고찰

1. 도시의 정의와 구성요소

도시는 인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활동의 중심으로서 시·공간의 장소이며, 기억과 혼적의 보고이다. 일반적으로 도시는 인간, 정치·행정, 사회·문화, 기능, 시설·환경 측면에서 다음 <표 1>과 같이 정의되고 있다. 또한 도시는 여러 가지 구성요소로 이루어지는

<표 1> 도시의 정의

구분	정의
인구	인구규모와 기능에 기초(미국 2,500명, 인도 5,000명, 한국과 일본 50,000명)
정치·행정	도시를 하나의 자치단체로 인정. 지방자치법 특별시, 광역시, 시, 읍 등(한국)
사회·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인 측면: 지적 엘리트를 포함한 각종 비농업적 전문가가 많은 곳(G. Sjoberg), 주민의 대부분이 공업적 또는 상업적인 영리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곳(M. Weber), 인공환경이 우월하며, 인구 구성의 이질성, 사회계층화의 심화, 유동성과 익명성이 강한 곳(P.A. Sorokin & C.C. Zimmerman) 등 ■ 문화적인 측면: 도시는 다양한 생각과 사고(思考)가 서로 만나는 터전으로서 시대를 이끌어 가는 새로운 사상을 담는 창고이며, 농촌과는 구별되는 다양한 거주형태와 사회적인 공간배치로 도시마다의 독특한 문화를 만들고 새로운 문명을 개척해 나가는 토양이 되는 곳(대한 국토도시계획학회, 1999)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대국가: 왕권이나 신권의 과시였으며, 잉여생산물을 기반으로 식량생산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전문가 집단을 도시 속에 집적시켜 각종 정보의 축적과 개발관리가 이루어짐으로써 도시문명의 발전이 이루어짐. 도시는 사회제도의 중심부로서 정치·행정조직·종교 등의 중심지기능을 담당하고, 농업과 공업 생산물을 거래하는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며, 상업활동과 교통의 중심지이고 문화의 중심지기능을 담당하는 곳 ■ 최근: 정보통신의 중심지가 강조됨. 이는 그동안 도시의 중심성을 결정해 온 교통의 역할을 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거리를 극복함으로써 도시의 집중문제가 해결될지, 아니면 또 다른 도시문제로 나타날지는 아직 속단 할 수 없음
시설·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층건물군과 도로, 상하수도, 기타 물리적인 여러 시설이 집적된 지역이고 시민들을 위한 생활환경이 계획적으로 정비된 공간으로, 고도의 다양한 인간 활동을 담는 그릇으로서 공통적인 인공적·물리적 장치를 갖추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물들은 도시경관적 측면에서 도시를 구분하고 규정하는 뚜렷한 요소가 될 수 있음¹⁾

1) 도시의 이해. (<http://web.joongbu.ac.kr/cmm/fms/FileDown.do;jsessionid...?atchFileId>) [인용. 2016.3.25]

‘유기적 복합체(a living complex system)’로서 시민(Citizen), 도시활동(Activity), 토지 및 시설(Land & Facility)은 상호관계를 가지며 도시를 구성한다. 즉, 도시에서 발생하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적정 규모의 인구와 토지 및 시설이 필요하고, 그 토지나 시설의 종류 및 성격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활동이 발생하기도 하며, 그에 따라 인구가 집중 또는 분산되거나 도시자체의 성격이 변화하기도 한다. 따라서 도시는 이를 각 요소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유기체라 할 수 있다(권용우, 변병설 2011, 11).

2. 도시 재생과 도시 기록화

가. 도시 재생

오늘날 도시는 공간속에서 도시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차별화된 이미지를 창출하여 도시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강화에 도시를 재생하고 있다. 도시재생(都市再生)의 개념은 도시재활성화(revitalization), 도시재개발(renewal), 도시재생(regeneration)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정의도 확대 재생되고 있다. 도시재생은 도시화의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교통, 환경, 재난, 경제, 주택, 복지 등), 탈도시화, 외연화 등과 같은 도시의 성장과 쇠퇴를 통해 도시기능의 상실과 같은 상실과 같은 부정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됨에 따라 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물리적 환경 중심의 개선으로부터 경제, 사회, 복지, 문화, 환경 등 복합적·지속가능한 개발 측면에서의 지역사회의 전반적 부흥을 위한 통합적 접근 방식의 정비사업으로 전개되고 있다(이상준 2007, 1; 장우진, 문수봉 2010, 47).

도시재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도시의 공간구조 개편, 토지이용 합리화, 도시환경의 개선, 사회적·문화적 활동의 장 마련,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관계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 신산업 발굴 및 고용창출, 지역주민의 참여 확대, 지역의 문화 및 환경 등과 관련한 새로운 도시 재생 개념 하에서 도시 및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리드하는 촉매제로서의 역할이다(김용웅 2007, 8–10; 강원발전연구원 2010, 9). 이러한 도시재생은 도시재생은 상가, 주거지, 산업단지, 폐부지(구 항만 등), 이전적지(군부대), 복합지역 등 대상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그 사업은 물리적, 환경적,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재생 등 다양한 유형(기법)으로 시행되고 있다. 2000년대에 들어와, 특히 상가와 주거지의 재생은 문화, 고용, 복지, 교육 등 다양한 부문의 지원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과거 우리의 경우, 대부분 물리적 환경의 개선에 여전히 치중하였고, 부동산 이익과 경제적 이해에 집중된 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원주민의 낮은 재정착율과 일자리 유실, 기존 커뮤니티 장소성과 공동체의 파괴와 기존 상권의 약화와 기형적 변화 등 사회적, 경제적 문제에 직면해 왔다. 2000년 후반부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분한 도시재생 연구기간을 거쳐 2013년 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과 더불어 도시재생 정책의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도시재생 지역과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 <표 2>와 같다(김영 2014, 14-15; 장우진 2011, 132).

<표 2> 도시재생 지역과 유형

구분	대상지역	유형
대상 및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가 재생 ■ 산업단지 재생 ■ 복합지역 재생 ■ 주거지 재생 ■ 이전적지 재생 ■ 기타 재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리/환경적 재생 ■ 문화적 재생 ■ 기타 재생 ■ 사회적 재생 ■ 경제적 재생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심, 시가지, 상가, 재래시장 등 ■ 마을, 동네, 다양한 주거 커뮤니티 ■ 공장, 산업단지 등 ■ 항만, 습지, 오염단지 ■ 공공기관/시설, 대중소기업체(이전), 군부대 ■ 역사권, 주상복합지역 등 ■ 기타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구조물, 시설장비, 친환경 서비스 개선 ■ 커뮤니티, 정체성 확보, 사회적 약자 보호 등 ■ 역사문화, 예술문화, 청소년문화 공간 시설 등 ■ 일자리 창출, 마을기업, 상권 활성화 등 ■ 기타(복합) 형의 재생

따라서 도시재생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로컬리티를 기반으로 한 도시 아카이브가 구축되고 활용되어야 한다(여진원, 장우진 2015, 8).

나. 로컬리티 기록화

도시재생 대상 지역에 대한 기록화 작업이 중요하다. 이것은 도시재생 전과 재생 후의 로컬리티(지역성)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함이다. 따라서 도시재생은 로컬리티를 기반으로 기록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로컬리티 기록화를 위한 도시 기록화의 영역은 도시에 대한 기록을 수집하고 관리하여 활용하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지역 아카이빙은 ‘기록’과 ‘기록화’하는 과정을 통해 지역의 고유한 역사와 기억의 가치를 잃지 않기 위해 기록하여 보존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역 아카이브의 목적은 크게 다음과 같이 3가지 함의를 가진다. 첫째, 지역의 변화사를 기록하여 지역의 문화적, 역사적 정체성을 확고히 할 수 있다. 둘째, 지역의 삶과 풍경을 기록하여 지역 아카이브 또는 지역 기록관을 만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셋째, 사라지는 ‘지역’의 모습을 기록하여 지역민의 생애와 문화를 보관한다. 지역 아카이브를 위해서는 지역 내 구성원들의 인식 정도를 파악해야 한다. 이것은 지역의 특성을 도출하기 위한 판단의 척도 중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주제별 요소는 지역 문화(주민, 문화, 종교, 공동체, 내부인식), 지역 역사(역사적 발전, 지역보도), 지역 사회(경제, 생산, 행정, 정치, 교육), 지역 공간(지리, 풍경, 자연환경, 건물)의 4가지 주제로 구성되어진다(권순명, 이승희 2009, 50-51).

또한 로컬리티 기록화와 관련한 접근 방법은 다음 <표 3>과 같이 4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지역의 공간과 장소 측면에서 기록화의 범주는 예술, 건축, 산업, 교육, 환

6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7권 제2호)

경·자연자원, 노동, 의료·보건, 정치, 인구, 여가, 종교, 과학기술, 언론, 교통 등이며 이것은 지역사와 관련된 모든 하위주제를 기록화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설문원 2011, 223).

〈표 3〉 로컬리티 기록화를 위한 다양한 접근법

접근법	기록화 방식의 특징	수집기록의 특징	운영 체계 및 아카이브 유형	학문적 배경
지역사의 포괄적 기록화	■ 지역 내 기록소장기관 참여 ■ 협력 수집 및 통합 검색을 위한 종합적 검색도구 필요	■ 전 주제 분야 포괄	■ 지속적인 협력 수집 체계의 유지	기록학
도시·공간 계획 관점 의 기록화	■ 사라져가는 공간의 이력 중시 ■ 역사성 있는 도시계획을 위한 활용성 고려	■ 공간 기록과 장소 경험에 관한 기록 ■ 물리적 환경에 관한 이미지 및 영상기록 중시	■ 건축·도시공간 아카이브 ■ 사진아카이브	건축/ 도시계획
공동체 기록화	■ 공동체의 정체성 함양 및 사회 통합 관점에서 접근 ■ 참여형 기록화 방식 중시 ■ 교육콘텐츠와 연계성 강조	■ 이민자, 다문화 공동체가 생산에 참여 ■ 이주 후 지역 경험, 이주 와 정착의 역사, 자신들의 뿐리에 관한 기록 ■ 전통적 마을 공동체의 민속자료	■ 커뮤니티 아카이브 ■ 마을 아카이브	사회학 인류학
생활사의 기록화	■ 미시사 관점에서 주변부 집단의 일생생활사를 기록 ■ 전통생활사의 기록	■ 구술사 비중이 큼	■ 생활사 아카이브 ■ 민속아카이브 ■ 구술 아카이브	사학 인류학 사회학

다. 도시 기록화와 사례

최근 도시의 발생에 있어서 급속한 도시화 과정을 거치면서, 모든 도시가 유사한 환경의 모습을 띠게 되었으며, 이러한 이유로 도시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의 상실과 획일성의 만연으로 도시의 고유한 특성과 매력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또한 삶의 질이 높아짐으로서 도시 내 시민들의 눈이 높아지면서 도시환경에 대한 쾌적성과 심미성을 추구하게 되었고, 다양하고 독특한 도시 고유의 개성을 살리기 위한 노력이 도시재생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도시는 재생으로서 도심지역 활성화를 중심으로 경제·사회·환경 및 물리적 업그레이드를 통한 커뮤니티 향상을 추구하고 있다.

현재 국내 도시들도 해외도시들과 같이 다양한 도심재생을 통해 도시의 위상을 제고하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지역사회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급속한 양적 성장을 위한 대량공급 정책에서 도외시 되었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복원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국내 도시들도 앞 다투어 국제행사를 유치하고, 중요한 장소들을 복원하거나 정비하는 대단위 사업을 통해 문화기반 도시 만들기에 사회적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 서울시도 동대문 문화공원과 같은 랜드마크 사업을 통해 디자인 도시로서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동시에 구도심 재생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민간참여를 유도하고 있다(강경민 2012; 김우영 2012, 5).

따라서 도시재생에서 중요한 것은 도시의 역사에 새겨진 기억과 흔적을 기록하고 해석하는 도시 기록화가 필요하고 중요하다. 도시 기록화에 있어서 어떤 자료를 수집하고 평가하여 어떻게 기록화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우선 선행되어야 한다. 도시기록화는 자료의 수집·기획부터 자료의 분류·보존·활용까지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다음 <표 4>는 도시기록화의 프로세스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표 4> 도시 기록화의 프로세스

구분	내용
기획	우선적인 기록화 목표 및 주제 선정
수집	수집 대상의 정확한 범위 설정
분류	수집 대상의 요소식별
정리	대상에 맞는 체계적인 분류
활용	구축된 아카이브의 지속적 보완과 활용

첫째, 기록화의 목표 및 주제를 선정해야 한다. 기획은 해당도시를 대표할 수 있는 기록화 대상부터 이루어진다. 이것은 도시의 브랜드화를 이끄는 주제가 될 것이며,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다. 도시를 대표할 수 있는 대상으로는 역사의 현장이나 문화재, 유명인물, 축제, 음식, 자연경관, 도시 내 건축물, 관광, 특산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찾아볼 수 있다. 도시가 처해있는 상황과 가지고 있는 도시자원의 내용 등에 따라 기록화의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다. 도시는 고유의 자원을 잘 활용하여 타 도시에 비해 우위성 있는 부분을 전략화하여 도시의 매력과 활력을 창출하여야 한다.

도시의 대표적인 이미지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기초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이 과정은 도시 기록화를 위한 단계로 기록화의 사명과 목표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다음 <표 5>는 도시기록화 수집정책을 나타내고 있다(권순명, 이승희 2009, 65).

<표 5> 도시기록화 수집정책

구성요소	내용
수집의 사명과 목적	도시 기록화 시 기록을 수집하는 합당한 근거
수집범위의 명확화	도시기록화의 수집분야 및 주제, 수집출처, 수집기록물의 유형, 수집지역의 지리적 영역, 시간적 범주 등을 정의함
수집 우선순위	실제기록물 수용범위를 고려하여 수집 우선순위를 결정함, 이때 가장 중요한 판단요소로 도시정체성을 고려할 것
수집의 조건	기록의 소유권, 접근제한, 재정관련 합의
수집정책 실행절차	기록 수집분야에 대한 수집방법과 절차에 대한 부분
수집협조	생산기관과 지역내 기록관의 협력관계에 대한 지침
수집기록 저작문제	기록처분 및 저작권, 소유권, 출판권 등

둘째, 기록할 수집대상의 정확한 범위의 설정이 필요하다. 기록화의 목표와 정책을 분명히 설정하고, 도시 내 자원의 시간적인 범위와 공간적인 범위를 명확히 하여 분류하여야 한다. 도시 기록화는 아카이브가 어떤 목표와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향후 수집되는 자료의 성격이나 체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수집대상의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 기록화 작업 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표 6> 참조).

<표 6> 도시기록화의 수집목적과 범위

구분		내용
수집 목적		도시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기록물을 수집하여 현재에 활용하고, 미래를 위해 보존하여 로컬리티를 형성하고 지역민과 소통하고 위함
수집 범위	수집 대상	지역기록물, 공공기록물, 공동체그룹 기록물, 매뉴스크립트, 지역민의 개인기록물, 지역 축제기록물 등 지역의 로컬리티를 나타낼 수 있는 기록물을 대상으로 함
	수집 유형	편지, 신문기사, 사진, 동영상, 구술자료, 일회성 인쇄물을 포함한 도시에 관련된 원자료
	지리적 범주	해당 도시 및 해당 도시에 관련되어 타 지역에서 생산된 기록물 포함
	시간적 범주	제한 없음
	수집 방법	기증, 구매, 구술, 유증, 위탁, 기탁, 이관

셋째, 도시 내 자원의 구성요소를 실체적 요소와 상징적 요소로 나누어 구분하고 분류하여 기록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곧 유형과 무형자원으로 구분한다. 각각에 맞는 기록화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그 시대 시민의 사고와 가치관을 알고 싶다면, 구술생애의 기록 매체를 통해 기록화하여야 하며, 도시의 경관이나 건축물,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다각도의 사진기술과 렌더링(rendering) 작업 등이 필요하다(권상구 외 2014, 26). 다음 <표 7>은 도시 안에서의 유형(有形)과 무형(無形)의 궤적(軌跡, 도시가 이루어온 과정이나 흔적)이 생성되는 곳과 그 조건들을 나타낸 것이다.

<표 7> 도시 안에서의 유무형의 궤적(권상구 외 2014, 26)

키워드		의미의 지점이 생성되는 곳	조건
유형	시간	선사~역사~근·현대	다양한 시대가 쌓인 장소
	공간	거리, 골목, 마당, 광장, 공공건물, 정자 등	다양한 중첩·복합행위가 일어나는 장소
	이동	보행, 교통, 통행, 경유, 순회, 순례	점과 선으로 표현되는 동선 행위
	경계	행정구역, 필지선, 좌표, 건축선의 변화, 추이	소유, 계획, 집행, 거래의 경계지점
무형	밀집	집회, 회합, 모임, 밀집, 방문, 퍼레이드	대규모 집합행위가 벌어지는 장소
	약속	약속, 데이트 등 유무형의 정체성 합의 공간	유무형의 정보, 아이덴티티 공유
	정서	장소에 대한 시민들의 정서적 인식 이미지	정서적 환기, 연대, 공유, 심상
	경관	심미성을 지닌 장소	도시민의 지속적, 시즌별, 정기적 방문

넷째, 도시 내 자원의 수집을 용이하게 하고, 수집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류한다. 도시 행정구역을 나누어 구역별 기록화 사업이 필요하며,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되면 전체를 아울러 진행해 나간다.

다섯째, 지속적인 보완 및 아카이브의 활용이 필요하다. 해당 분야 주제의 자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보완하며 보존해 나아가야 한다. 또한 수집된 자료는 도시의 정체성을 강화시켜줄 뿐만 아니라 도시에 대한 역사교육, 전시와 홍보, 학술자료 편찬 등과 같은 문화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으며, 정책적인 활용, 축제나 관광과 같은 프로그램도 개발이 가능하다(여진원, 장우권 2013, 330-331).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도시재생을 토대로 한 지역의 역사와 문화 측면에서 ‘선교’를 주제로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동의 기록화 사례를 제시하는데 있다.

III. 도시기록화 사례

1. 도시 기록화의 대상 선정

이 연구에서 도시 기록화 사례는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동을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이 지역은 광주 기독교 선교의 발상지로 선교사 사택 및 서양식 의료·교육시설 등 기독교 관련 근대 문화유산이 산재해 있다. 또한, 지방 민속문화재로 지정된 일제강점기 지역 부호들에 의해 형성된 주거지 관련 근대 전통가옥도 보유하고 있다. 양림동 지역의 도시재생은 이러한 근대 문화유산의 잠재 자원을 발굴하여 이를 기록·보존하고 활용하는데 있다<그림 1>.



〈그림 1〉 광주 남구 양립동 지역의 범위 설정

2. 광주 양림동의 역사적 조명

‘양림’이라는 이름의 유래는 과거 버드나무가 많은 곳이라 양림(楊林)이라고 불리었다고 한다. 남구 전체 면적의 1.0%(0.63km²)를 차지하고 있으며 동쪽으로 동구 금동, 서쪽으로 백운 1,2동, 남쪽으로 방림 1동, 북쪽으로 사직동과 접해있다. 양림산과 사직 공원 능선의 동남 사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양림동 앞으로는 광주천이 흐르고 있다. 과거 광주천의 물길은 현재 양림 오거리까지 흘렀으나 일제강점기때 제방을 축조하여 오늘날의 지세를 갖추게 되었다. 양림동은 현재 광주천을 사이로 광주도심부와 맞닿아 있지만 일제강점기까지도 광주 읍성 외곽에 속한 주변 지역이었다(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동 주민센터 2015).

현재 양림동은 양림산에 위치한 전통 주거 지역이었으나 과거 인가가 없고 무덤만 즐비하던 곳이었다. 일제강점기 전후로 근대 개화기 신문화운동의 발상지가 되었다. 이것은 미국에서 건너온 선교사들이 선교, 교육, 의료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지대한 활동의 영향이었다.

1904년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들이 양림동에 정착해 교회와 수피아 여학교 및 현재의 기독 병원을 세웠다. 민족 운동, 지식인 교류, 국악·서양음악·연극 등 종합예술의 중심지였을 뿐만 아니라 종교, 의료, 교육, 복지 등의 다양한 활동이 펼쳐졌다. 근대화의 물결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났던 1960~70년대까지 선교사들이 많이 살았던 곳으로 ‘서양촌’, ‘신양촌’, ‘광주 근대 문화의 요람’ 등으로 불렸다.

이처럼 양림동은 광주의 근대성을 기억하고 있는 상징적 공간이다. 기존의 양림동 공간에 대한 고찰은 대부분 기독교적 관점에서 선교사들의 행적과 생애사에 집중되고 있는데 양림동을 광주 근대 문화의 발상지라는 관점에 접근해서 당시 시대적 상황을 읽어낼 필요가 있다. 즉 광주에 서양 문화가 최초로 들어온 양림동 공간을 종래의 종교적 관점과 더불어 문화적 관점에서도 조명하여야 한다는 것이다(천득염 2009, 25). 양림동은 광주의 근대사를 이끌었던 인물들이 주로 활동했던 역사의 중심지였으며 현재까지도 다양한 문화 예술인들이 활동한 터전이기도 하다. 근대 문화유산이 집적된 곳으로 광주에서 유일하게 서양의 선교 문화와 전통 문화가 공존하고 있는 곳이다. 따라서 그 역사·문화적 가치에 대한 인식과 재조명이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3. 기록화 기획 및 분류

도시 기록화 사례는 대부분 해당 도시의 미래상을 설정하면서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지역 및 도시 발전이라는 커다란 범주에서 상징적 의미를 부여받게 되며, 더 나아가 도시 브랜드로 발전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도시계획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시의 비전을 중

심으로 일관성을 가지고 구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연구에서는 도시재생을 토대로 한 지역의 역사와 문화 측면에서 ‘선교’를 주제로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동의 기록화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광주 남구 양림동과 선교와 관련된 문헌을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한다. 둘째, 광주 남구 양림동 지역에 소재한 근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한다. 셋째, 이를 바탕으로 도시의 역사성, 도시 브랜드 및 이미지, 지속가능성 제고를 구축한다.

기록의 분류는 도시의 역사, 건축물, 유형 문화재, 문화 관광 및 정책에 대해 주제별로 나누어 조사하였다.²⁾ 이러한 분류는 양림동 지역의 기록화 사례로 도시의 역사성, 도시 이미지 및 브랜드,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전제이다.

4. 기록의 수집 및 생산

도시의 기록화는 ‘수집’과 ‘생산’이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도시의 지나간 시간에 대해 기록물 등을 발굴하여 보존하는 것이 ‘수집’이며, 현재 이루어지는 현상이나 사건, 실체에 대해 기록하여 관리하는 것이 ‘생산’이다.

가. 기록의 수집

기록의 수집은 문헌조사, 연구조사 등의 기초조사를 통해 지역 내 특성과 자원 등의 현황을 파악한다. 문헌조사와 연구조사는 발행된 단행본과 학술지, 지역에서 발간하는 신문이나 소식지, 간행물(정기적, 비정기적) 등을 주제별로 분류하며, 매체별로 다양한 자원을 수집하기 위해 문서와 기록물 뿐 아니라 사진자료도 수집하였다. 기록의 수집 기간은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이며, 자료의 수집처는 광주광역시청, 광주남구청, 양림동 주민센터, 광주남구문화원, 양림교회, 수피아 중·고등학교, 호남신학대학교, 광주기독병원, 광주·전남·무등일보 신문사와 웹페이지 등이다.

1) 단행본 및 학술지

① 단행본

조사 결과 총 40권으로 나타났으며, 양림교회 100년사를 중심으로 기독교관련 중심의 출판물, 선교사 개개인의 인물, 그 밖의 양림동의 선교 관련 건축물을 설명해주는 관광에 관련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이를 주제별로 구분하여 다음 <표 8>과 같이 ‘선교’, ‘교회사’, ‘문화재/

2) 이 연구에서는 역사와 문화 분야의 여섯 가지 요소 중 무형문화재와 음식문화의 상징적인 요소를 제외한 실체적인 특성을 지닌 요소에 보다 중점을 두었다.

12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7권 제2호)

건축물', '관광', '도시사', '문학'으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그 결과 선교와 관련된 주제의 단행본은 12건, 문화재/건축물 11건, 관광 7건, 교회사 5건, 도시사 4건, 문학 1건으로 나타났다.

〈표 8〉 단행본 목록과 주제

연번	서명	주제	저자	출판년도	발행처
1	신학교육기관자료 . 1977	선교	전국신학대학협의회	1977	전국신학대학협의회
2	호남선교 100년과 그 사역자들	선교	김수진	1992	고려글방
3	(수피아의 어머니 유화례) 메마른 땅에 단비가 되어	선교	안영로	1994	㈔한국출판사
4	전라도가 고향이지요 :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들의 눈물과 땀의 발자취	선교	안영로	1998	㈔한국출판사
5	양림동에 묻힌 22명의 미국인 : 한국에서 순교한 선교사들의 이야기	선교	차종순	2000	호남신학대학교 45주년 사료편찬위원회
6	성자의 지팡이 : 영원한 자유인, 오방 죄홍종 목사 실명소설	선교	문순태, 죄홍종	2001	나자리
7	생명과 영성의 치유윤리	선교	김창모	2003	한들출판사
8	광주 선교와 남도 여성 이야기	선교	이덕주	2008	진홍
9	신행여행 : 이성필 목사와 함께 떠나는 성지순례	선교	이성필	2008	세줄
10	조선을 섬긴 행복 : 서서평의 사랑과 인생	선교	양창삼, 양국주	2012	Serving the People
11	(한국 선교와 전라도 선교의 어머니) 유화례	선교	유화례(안영로 엮음)	2013	㈔한국출판사
12	제종원 편지1	선교	광주기독병원선교회	2015	쾨디아이
13	楊林敎會 90年史 : 1904~1994	교회사	양림교회구십년사편찬위원회	1994	양림교회
14	양림교회 90년사 . 자료집제1권	교회사	광주양림교회	1995	光州楊林敎會
15	양림교회 100년사	교회사	양림교회 역사편찬위원회, 광주양림교회	2003	양림교회역사편찬위원회
16	양림교회 100년사 . 2 , 1953~2004	교회사	차종순, 양림교회 역사편찬위원회, 광주양림교회	2009	양림교회역사편찬위원회
17	한국 장로교 종회 창립 100년사 : 1912~2012	교회사	김수진	2012	홍성사
18	빛고을 光州	도시사	오성근	1993	광주문화원
19	광주 남구마을(동)지	도시사	광주광역시 남구문화원	2002	광주광역시 남구문화원
20	광주광역시 구전설화	도시사	전국문화원연합회 광주광역시지회	2005	전국문화원연합회 광주광역시지회
21	광주천 그 옆에 깃든 여덟 동네 이야기	도시사	문화수도광주 빛나는 이야기찾기 주진위원회	2008	광주광역시
22	(2003) 文化財修理報告書	문화재	광주광역시	2004	광주광역시 문화기반조성과
23	文化財圖錄	문화재/건축물	광주시 문화예술과	1990	光州直轄市
24	文化財圖錄	문화재/건축물	광주광역시	1997	光州廣域市
25	문화유적	문화재/건축물	광주광역시 남구문화원	2001	광주광역시 남구문화원
26	광주 구 수피아여학교 수피아홀 및 커티스메모리얼홀 : 기록화 조사 보고서	문화재/건축물	한국 문화재청, 조선대학교 건축학부	2006	문화재청
27	민족 문화의 꽃을 피우다 : 호남 100대 문화원형 콘텐츠 기획 종람	문화재/건축물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단	2007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단
28	도시재생을 위한 근대역사환경 활용방법 분석 : 부산, 광주, 군산을 사례로	문화재/건축물	강동진, 이순자, 국토연구원	2008	국토연구원
29	청춘남녀, 백년 전 세상을 탐하다 : 우리 근대문화유산을 찾아 떠나는 여행	문화재/건축물	최예선, 정구원	2010	모요사
30	韓國基督教 近代文化遺產 圖錄	문화재/건축물	한국기독교문화재발굴보전본부	2010	한국기독교총연합회
31	수피아여학교 원스boro우홀	문화재/건축물	신웅주	2011	디자인마루
32	광주공간건축10주년 기념작품집	문화재/건축물	광주공간건축사사무소	2012	광주공간건축사사무소
33	(아시아문화교류권 조성을 위한) 역사문화마을 관광자원화 사업 기본계획	관광	차종순, 고민석, 광주광역시	2008	광주광역시
34	대한민국 걷기사전 : 서울에서 제주까지 걷고 싶은 길 200	관광	김병훈외 6인	2010	티치아트
35	그리움은 뒤에서 온다	문화	문순태	2011	오래
36	대한민국 도시여행 : 도시 골목골목, 우리 문화와 이야기를 따라 걷다	관광	이병학	2011	안그라피스 : 퀼처그라피
37	문화관광탐험대의 광주건문록 . 1~3	관광	광주광역시 광주문화재단	2012	광주광역시 광주문화재단
38	여러들의 도시여행 : 언제든지 떠나는 면면하고 놀기 좋은 여행지	관광	권다현, 고꼬마트레이인	2012	중앙북스
39	남도가 정말 좋아요 : 전라남도편	관광	김남형외 39인	2013	디자인하우스
40	대한민국 최고 인기 여행지 100 :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여행지	관광	오주환	2014	상상

② 학위 논문 및 학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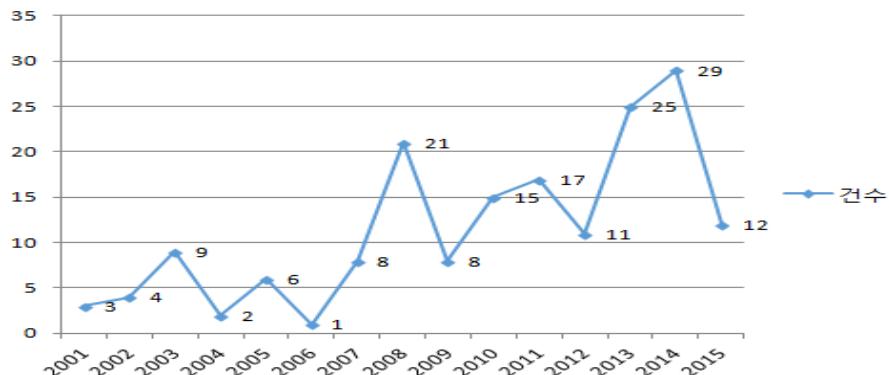
양림동지역의 선교와 문화 관련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논문은 학위 논문이 16건, 국내 학술지 논문이 5건으로 조사되었다. 선교 역사에 관련된 논문보다는 양림동의 도시 재생에 관련된 논문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논문의 제목과 내용을 분석하여 이를 주제별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 양림동의 도시 재생에 관련된 논문이 1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문화재/건축물이 6건, 관광이 3건, 도시사(都市史)가 1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5년부터 현재까지 연구 논문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서 볼 때 광주 양림동의 근대 문화적 가치가 최근 재조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9〉 학위논문 및 학술지 목록과 주제

연번	종류	논문제목	주제	저자	발행년도	발행처
1	학위	역사환경 체험을 위한 보행네트워크 구성에 관한 연구 :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동의 역사유적을 중심으로	문화재/건축물	김병수	2005	전남대학교
2	학위	光州 楊林洞 宣敎地域 近代建築의 特徵에 관한 研究	문화재/건축물	박종호	2008	조선대학교
3	학위	문화공간 활성화 방안 연구 : 구도심 재생의 관점으로	문화재/건축물	김경환	2011	전남대학교
4	학위	광주광역시 양림동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한 도시 재생	문화재/건축물	나은정	2012	전남대학교
5	학위	경관색채를 통한 장소성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동을 중심으로	문화재/건축물	김현정	2013	이화여자대학교
6	학위	문화원형을 활용한 도시브랜드 아이덴티티 구축에 관한연구 : 광주광역시 문화원형을 중심으로	문화재/건축물	차국환	2013	광주대학교
7	학위	커뮤니티 맵 작성을 위한 지역특성 추출과정에 관한 연구 : 광주광역시 양림동 거점화산형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을 대상으로	도시사	김규리	2009	호남문화연구
8	학위	친환경 집합주거단지 개발 모형에 관한 연구 : 광주광역시 양림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를 중심으로	도시재생	이승훈	2005	호남대학교
9	학위	지역활성화를 통해 본 도시공간 의미의 재구성 : 광주광역시 양림동을 중심으로	도시재생	이정훈	2008	목포대학교
10	학위	都市再生에 있어서 거점개발구역 선정 시 주민참여 方案에 관한 研究	도시재생	신광식	2008	광주대학교
11	학위	도시 숲과 지역의 역사문화를 연계한 생태문화탐방로 조성 방안에 관한 연구 : 양림산 자연생태조사를 통하여	도시재생	박병우	2008	광주대학교
12	학술	거점화산형 지역주민의 인지 및 애착 장소에 관한 연구	도시재생	김규리, 허윤경, 이연숙	2008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3	학술	광주 양림동의 근대도시공간적 의미	도시재생	첨득염	2009	호남문화연구
14	학위	거점화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주민의식조사를 통한 개선방안 : 양림동을 중심으로	도시재생	박경채	2011	광주대학교
15	학술	양림동선사촌의 건축과 관련된 이야기들	도시재생	차종순	2011	한국건축역사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16	학위	광주광역시 양림동의 도시 재생과 주체 간 갈등 구조	도시재생	박민정	2012	전남대학교
17	학위	문화적도시재생을통한도시관광활성화방안: 광주광역시 양림동을중심으로	도시재생	홍옥범	2015	전남대학교
18	학위	문화적도시재생을위한지역문화매개자의역할분석－광주광역시 양림동을 중심으로－	도시재생	장세영	2015	전남대학교
19	학술	광주 양림동 근대문화유산의 보전가치 특성에 관한 연구	도시재생, 관광	박익수	2014	녹색산업연구
20	학술	광주구수피아여학교 원스브로우홀의 변화와 원형추정 연구	관광	신옹주, 성대철	2012	농촌건축 :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21	학위	광주 양림동 '역사문화마을'의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관광	백예경	2013	전남대학교

2) 지역 신문

광주지역 내 발행되는 신문 중 지역 종합일간지 중 대표적이라 볼 수 있는 ‘광주일보’, ‘전남일보’, ‘무등일보’의 3종류의 신문을 조사하였다. 그 중 양림동 선교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이 담긴 기사는 200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등일보 67건, 전남일보 60건, 광주일보 41건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는 양림동 선교의 역사에 관련된 기사가 많았으며, 양림동 선교 관련 건축물과 문화행사 소개 등이 뒤를 이었다. 주제별로 살펴보면 선교 관련이 60건, 문화재/건축물 관련이 55건, 관광 관련이 46건, 도시재생 관련이 10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 와 같이 양림동 역사 문화 마을 관광 자원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0년 이후로 기사가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그림 2> 참조).



<그림 2> 연도별 지역신문 건수의 변화

3) 지역 소식지

양림동 지역에서 발행되는 지역 소식지는 ‘양림동산’과 더불어 광주 남구에서 발행되는 ‘금당문화’, ‘문화금당’으로 조사되었다. 각 지역 소식지에 대한 내용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양림동산

양림동산은 2006년 겨울부터 출판된 계간지로서 지역 소통의 장이 되고 있으며, 아파트 공사진행 과정과 주민들과 관련된 여러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다. 관주도의 행정일변도에서 벗어나 주민자력으로 발간한 계간지인 양림동산은 주민의 경향과 지역특색을 확인하는데 또 다른 척도가 된다. 양림동산 창간호부터 63호까지 실린 글들을 조사하여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선교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선교 25건, 관광 20건, 문화재/건축물 17건, 기타 9건, 도시재생 3건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 <표 10>은 서지사항과 더불어 내용의 주제 분류를 나타낸 것이다.

<표 10> 양림동산 주제별 분석

호	제목	발행년도	주제
1	양림동과 인권운동	2006	선교
	셋이 된 양림교회의 할 일	2006	선교
3	양림동과 기독간호사	2007	선교
4	수피아 100년	2007	선교
	민속자료 탐방	2007	문화재/건축물
	기념물 탐방	2007	문화재/건축물
	양림동에 역사문화마을 조성된다	2007	관광
5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공간에서	2007	문화재/건축물
6	역사문화마을 양림동산의 관광자원화	2008	관광
7	꿈이 있는 양림동의 미래를 그리며	2008	도시재생
8	수피아 100주년	2008	선교
	사라지고 잊혀져가는 것들에 대하여	2008	도시재생
9	이야기의 보고 양림동	2009	관광
	잘사는 양림동을 만들어 갑시다	2009	도시재생
10	양림의 얼	2009	선교
	양림동이 좋은 것은	2009	관광
	광주 비엔날레와 양림동	2009	관광
11	양림동 프로젝트	2009	관광
12	북미원주민선교	2009	선교
13	양림동민만이 갖는 특별한 삶의 정체성	2010	선교
14	양림의 자랑(2)	2010	문화재/건축물
15	양림의 자랑(3)	2010	문화재/건축물
	양림동역사문화마을	2010	관광
	문화관광해설사의 역할에 큰 기대를 하며	2010	관광
16	관광지원화사업본격착수	2010	관광
17	광주 양림동, 역사문화마을로 재탄생	2010	관광
	양림동을문화유산방문자센터로기위나갈것	2010	관광
	역사문화·지방자치 본연은 '사람중심'	2010	문화재/건축물
18	오방의 거리	2010	선교
	양림동 문화유적 살아 숨쉬게 하자	2010	문화재/건축물
	호남신학대학교 기숙사 준공에 즈음하여	2010	선교
19	세 양림교회	2010	선교
	성공적인양림동역사문화마을 조성을기원하며	2010	관광
	예수피아교회 북미원주민 선교이야기	2010	선교
	남구 양림동근대역사문화마을	2010	관광
	둘레길조성	2010	관광
21	양림은 고향이여라	2011	선교
	양림동 이야기	2011	선교
	민족의 산실 양림이여 영원하라!	2011	선교
	양림동근대역사문화마을둘레길 조성사업마무리	2011	관광
23	아프리카 케냐에 우뚝 선 양림 선교동산	2011	선교
	양림동선교동산을 영어마을로 만들수는없을까?	2011	관광
25	문화 전통과 삶의 일체성	2011	기타
	광주와 관광	2011	관광
	문화시대, 그리고 양림동	2011	기타

16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7권 제2호)

26	선교동산 길 근대역사문화 우리 손으로 지킵시다	2011	선교 문화재/건축물
28	역사의 도시 광주 세계로 서서평과 최홍종의 만남	2011	기타
	서서평 선교사 77주기를 기다리면서	2011	선교
	근대역사문화의 보고 양립동	2011	문화재/건축물
31	마음의 고향 양립동	2011	기타
33	오웬기념각	2011	문화재/건축물
38	광주기독병원과 조선독립광주신문	2012	선교
41	양립동 선교사촌	2012	선교
42	서양최초의 건물 숭일학교 터 기적비	2012	문화재/건축물
43	오웬기념각	2012	문화재/건축물
45	문화로 소통하는 남구	2012	기타
	역사와문화가살아있는차별화된 색과 빛의남구	2012	기타
	양립동만의 특성을 살린 문화마을 조성	2012	관광
46	호랑가시나무길	2013	문화재/건축물
	양립동스러운 양립동 개발	2013	기타
	새로운 깨달음을 준 선교동산의 묘비하나	2013	선교
	양립, 은둔에서 세상속으로	2013	관광
54	응답하라 수피아	2014	선교
55	양립에 오이(5X2)다.	2014	선교
57	광주 양립동, 양립다움으로 거듭나야	2014	문화재/건축물
59	양립동! 그 역사적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자	2014	문화재/건축물
60	근대역사살아숨쉬는거리	2014	문화재/건축물
	문화역사마을 양립동의 탄생 배경	2014	선교
61	양립동의 인문학 숨결을 찾아서	2015	기타
62	광주 동구, 남구 양립동을 가 보라	2015	관광
	양립정신과 광주정신	2015	기타

② 금당문화 및 문화금당

금당문화는 광주 남구 문화원의 회보로서 년 4회(3, 6, 9, 12월)에 발행하는 계간지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주 남구의 소식, 문화원 소식, 문화 논단, 금당 문예 등이다. 이 회보에서는 남구 문화원이 하는 일을 알리고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길을 열어 가는데 역점을 두고 있으며 많은 문화 행사, 각종 강좌를 비롯한 평생교육기회를 스스로 찾아 자기생활의 향상을 누리도록 홍보하고 있다. 한편, 문화금당은 문화원지로서 년 1회(12월중)에 발행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특집, 내 고장의 뿌리, 연구논문, 문학 등이 실려 있다. 광주 남구 주민들의 문화적 소양 함양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으며, 지역의 고유한 문화 자원을 체계적으로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깊은 의의를 가진다. 다음 <표 11>는 금당문화 및 문화금당에 실린 글의 내용을 조사·분석한 것이다. 여기에서 선교와 관련된 내용으로 선교 6건, 문화재/건축물 6건, 관광 6건으로 나타났다.

<표 11> 금당문화 및 문화금당 주제별 분석

회보	호	제목	발행년도	주제
금당문화	4	양림동 역사의 숲 가꾸기	2008	관광
금당문화	5	충효예 체험 교육관 세워	2008	문화재/건축물
금당문화	6	남구를 문화수도의 대표적인 시범도시로 만들자	2008	관광
금당문화	6	"한,화관건축문화마을"조성	2008	관광
금당문화	12	문화요소찾아보는날'운영	2008	관광
금당문화	13	선교사사택과호랑가시나무	2008	문화재/건축물
금당문화	26	가족과 함께하는 「광주근대역사문화탐방」 기초질서 지키기 시범거리 운영	2008	관광
금당문화	30	제4기 금당문화대학개강안내	2009	선교
금당문화	33	오방五放최홍종崔興琮	2010	선교
금당문화	33	양림동 역사 문화마을	2010	관광
금당문화	38	문화성장을 꿈꾸며...	2011	관광
금당문화	44	진정한 문화의 의미	2012	문화재/건축물
금당문화	48	양림동역사문화마을 '전국최고향토자원'	2013	문화재/건축물
금당문화	49	내가 사랑하는 광주 남구 땅	2014	문화재/건축물
문화금당	1	문화유적으로 본 광주의 역사	2001	문화재/건축물
문화금당	11	양림동 변천의 재조명	2011	선교
문화금당	11	양림동교회들이야기	2011	선교
문화금당	11	빈민과 병자들과 약한사람들을 살린 근대 의료와 봉사	2011	선교
문화금당	11	승일학교와 수피아여학교	2011	선교

4) 사진 자료

사진 자료는 문자 중심의 기록물의 사실을 재현하는 동시에 의미를 생산하는 도구이다. 광주 남구 양림동의 경우 선교와 관련된 사진 자료는 주로 광주 기독병원과 수피아여고를 통해 총 1,133건을 수집하였다. 근대화와 선진화의 주역이었던 광주기독병원과 수피아 학교는 외지로부터 많은 지식인들을 끌어들였으며, 이들 신진 지식인들이 주거 터를 양림동에 마련함으로써 양림동은 발전할 수 있었다. 광주기독병원(제중원)의 경우 미국 남장로교 의료선교사인 Nolan 선교사가 1905년 11월 20일 오후에 9명의 환자를 진료함으로써 광주에서의 현대의료가 시작되었다. 현재 광주기독병원에서는 지역민들의 치료는 물론 무의촌지역의 순회진료와 지역민의 보건 위생교육, 의료·보건인의 전문인 양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수피아여고의 경우 미국 남장로교 Eugene Bell(한국명: 배유진) 선교사가 여학교를 설립하여 100년의 전통을 지닌 학교이다. 3.1 운동과 광주학생독립운동, 5.18 광주민주항쟁 등의 역사적인 사건들에도 영향을 끼쳤으며, 학교 내의 주요 건물들도 선교사들의 손길이 닿은 역사적 건축물이다.

사진 자료의 주제별 분류는 크게 인물, 건물, 전경(全景), 기타의 4가지로 구분하였다. 인

물 사진은 주로 양림동에서 사역했던 선교사 및 선교사 가족 사진과 더불어 당시 상황을 나타내주는 풍물 사진 등이 있다. 건물 사진은 주로 광주기독병원과 수피아 학교에 관련된 내용이 많으며, 전경에는 양림동 일대의 예전 모습이 담겨져 있다. 마지막으로 기타 사진에는 선교와 관련된 문서, 지도, 도구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주제별 건수를 살펴보면 인물 687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건물 246건, 기타 124건, 전경 48건, 인물과 건물 혹은 인물과 기타 같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주제가 겹치는 경우가 28건으로 나타났다.

광주기독병원의 사진 자료는 오래된 사진자료의 경우 주로 원본은 미국에 있는 선교사 후손들이 가지고 있고, 원본을 스캔한 사진이 대부분이다. 주요 내용은 광주기독병원의 역사관 전시 사진과 Wilson 선교사 소장 자료, 기독병원 사역 선교사 관련 사진, 독립운동 관련 인쇄물 복사본 등이 있다. 수피아여고는 수피아여고의 전경사진과 Florence E. Root(한국명: 유화례)선교사 관련 자료 사진, 수피아 100년사에 수록된 사진자료 등이 있다.

다음 <그림 3>는 사진자료 1,133건 중 인물, 건물, 전경, 기타 관련된 기타 사진 등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 속 인물은 광주기독병원 초대원장인 Nolan 선교사이고, 건물 사진은 광주기독병원의 전신(前身)인 1905년 제중원, 전경사진은 1910년대 순천역, 기타 사진은 선교 관련지도이다.



<그림 3> 인물, 건물, 전경, 기타 관련 사진자료 예시

나. 기록의 생산

광주지역에서 근대의 모습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곳이 양림동이라고 할 수 있다. 양림동이 다른 지역과 다르게 근대식 서양 건축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이유는 서양 선교사들 때문이다. 1904년 목포를 통해 들어온 기독교 선교사인 서양인에 의해 근대식 교육과 근대식 의

료가 시작된 곳이다. 과거 양림산 일대는 왕실에 화살대를 납품하던 관죽전이었다. 뿐만 아니라 양림산은 어린아이들이 죽으면 그 시신을 짚으로 싸서 나뭇가지에 매달아 놓는 방법으로 풍장(風葬)을 하던 곳이었다. 따라서 양림산 일대는 어린아이들의 시신을 먹으려고 달려드는 여우가 많이 사는 일명 ‘여우골’이었으며 동시에 까마귀들이 서식하는 곳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쉽사리 그 앞을 지날 수 없을 만큼 괴기스럽고 무서운 곳이기도 했다. 그러한 이유로 서양 선교사들은 비교적 싼 값에 양림산 일대의 땅 56 에이커를 선교부지로 구입할 수 있었다. 그때부터 이곳은 ‘서양촌’으로 불렸으며 서양인 선교사는 1904년부터 1985년까지 이곳에 거주하였다(광주남구마을(동)지(2002)). 서양인이 이곳에 거주하기 시작한 1904년부터 10여 년간 9동의 주택과 1동의 병원, 2개의 학교, 1개의 성경학교 건물이 지어졌으며 현재 남아있는 당시의 건물은 수피아홀, 오웬 기념관, 벨 기념관, 선교사 사택 등이 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건물은 몇 동이 더 지어졌다.

〈표 12〉 양림동 근대 문화 유산 현황

명칭	건축 연대	용도		문화재 지정 여부
		과거	현재	
오웬 기념각	1914	공연	유휴 공간	광주광역시 유형문화재 26호
수피아 홀	1911	교사	교사	문화재청 등록문화재 158호
우월순 선교사 사택	1910	주거	유휴 공간	광주광역시 기념물 15호
유진벨 기념관	1925	교회	교회	문화재청 등록문화재 159호
윈즈버로우홀	1927	교사	교사	문화재청 등록문화재 370호
수피아 강당	1935	교사	교사	
선교 기념비	1982	기념	기념	
선교 묘역	1909	묘지	묘지	

양림동에 분포되어 있는 선교 관련 문화유산은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서양 선교사에 의해 지어진 근대시기의 서양 건축 유형(오웬 기념각, 수피아 홀, 우월순 선교사 사택, 유진벨 기념관, 윈즈버로우홀, 수피아 강당)이다. 둘째, 역사적 건축물이나 형상물은 남아있지 않지만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장소(선교 기념비, 선교 묘역)이다. 분류된 기록 대상을 사진, 명칭, 지역과의 관계, 특정인물/소재와의 관계, 기타특징으로 나누어 작성하였다. 특히 기록의 맥락론 측면에서 지역과의 관계, 특정인물/소재와의 관계는 기록 대상 자원의 생성과 관련된 배경적 사유를 기술하였다.

1) 서양 건축물

- ① 오웬 기념각<그림 4> ② 수피아 강당<그림 5> ③ 수피아 홀<그림 6> ④ 우월순 선교사 사택<그림 7> ⑤ 커티스 메모리얼 홀<그림 8> ⑥ 윈스보로우 홀



명칭	오웬 기념각
지역과의 관계	나병(한센병)을 치료하기 위해 가장 오지를 찾다가 미국에서 목포로 큰 배를 타고 목포에서 영산강을 통해 또 영산강에서 말을 타고 양립동에 최초로 정착한 것으로 선교적 의미를 지님
특정인물/소재와의 관계	선교사 오웬과 그의 할아버지 위한 기념각으로 광주에서 선교활동을 했던 오웬 선교사를 기리기 위해 1914년 건립
기타 특징	기념각은 생전에 할아버지의 기념각을 지을 계획을 갖고 있었던 손자 오웬의 뜻을 받들어 그가 죽은 뒤 미국의 친지들이 보내준 성금으로 건립됨

〈그림 4〉 오웬 기념각



명칭	수피아 강당
지역과의 관계	광주 수피아 여자 고등학교 소강당
특정인물/소재와의 관계	
기타 특징	광주광역시 문화재자료 제27호

〈그림 5〉 수피아강당



명칭	수피아홀
지역과의 관계	1911년 Jennie Speer 기념 현금으로 지어짐
특정인물/소재와의 관계	Jennie Speer가 돈을 기부해서 그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 수피아로 지음
기타 특징	수피아 여학교는 광주 지방 최초의 여성 교육의 요람이자 광주 지방 개신교 선교의 근거지로 교육사적, 종교사적으로 가치가 있으며, 근대기 한미교류의 흔적으로 한미교류사적 가치도 인정되고 있음

〈그림 6〉 수피아 홀



명칭	우월순 선교사 사택
지역과의 관계	지역 최초의 고아원 사역을 시작한 곳, 주일학교를 부흥시킨 곳, 광주에서 지어진 최초의 서양식 건물
특정인물/소재와의 관계	우월순/나병 환자들을 위한 병원으로도 사용되었음
기타 특징	드라마 <구미호와 전> 촬영지

<그림 7> 우월순 선교사 사택



명칭	커티스 메모리얼 홀
지역과의 관계	일제시대에 선교사가 들어와 여학교를 개설해 서양촌으로 불리는 곳
특정인물/소재와의 관계	Eugene Bell(배유지) 목사 추모를 위해 건립
기타 특징	규모는 작지만 변화가 풍부하고 언덕을 그대로 살려 짓는 등 건축기법이 우수

<그림 8> 커티스 메모리얼 홀



명칭	원스보로우 홀
지역과의 관계	기독교 선교 성지
특정인물/소재와의 관계	미국인 여성인 Winsborough가 기부, 1927년 일제의 지정학교 선정 기준에 맞추기 위해 지은 건물
기타 특징	광주 학교 건축물을 대표하는 사례, 주변에 서있는 수피아홀(1911년), 커티스메모리얼홀(1911년), 수피아여중 별관(1935년)과 강당(1939년) 등 지역, 근대건축의 변천사를 알 수 있음

<그림 9> 원스보로우 홀

2) 선교 관련 장소 : ① 선교 기념비<그림 10> ② 선교 묘역<그림 11>

5. 기록의 활용



명칭	선교 기념비
지역과의 관계	기독교 선교 성지
특정인물/소재와의 관계	선교사 배유지 목사/선교사들이 처음으로 예배드린 곳으로, 거룩한 뜻을 기려 비석을 세움
기타 특징	자연석 화강암제로 음각되어 있으며 크기는 길이 175cm, 폭 85cm, 두께 50cm이며, 비문 내용은 국문과 영문으로 새겨져 있음

<그림 10> 선교 기념비



명칭	선교 묘역
지역과의 관계	
특정인물/소재와의 관계	1895년 한국에 선교사로 와서 나주, 목포, 광주에 선교부를 세우고 30년간 한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살다가 주님의 품에 안긴 Owen 선교사, Eugene Bell 선교사를 비롯한 선교사와 그들의 부인과 자녀 그리고 친척 등 22명의 미국인이 묻혀있다.
기타 특징	광주 유형 문화재 제26호

<그림 11> 선교 묘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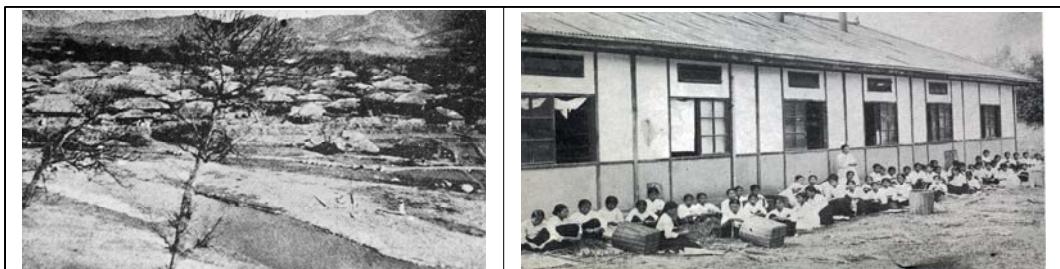
해당 도시의 수집·생산된 기록들은 다각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는 도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핵심적인 자원을 제공하며, 역사 자료의 보존과 동시에 도시의 정책 및 홍보 자료로 쓰일 수 있고,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생성하고, 도시 마케팅의 수단이 된다. 이 연구에서는 도시의 역사성, 도시 브랜드 및 이미지,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방향에서 기록의 활용을 제시한다.

가. 도시의 역사성 보존

선교 관련 기록물은 도시의 역사성이 나타나는 자료로서 깊은 의미를 가진다. 최근 광주기독병원에서는 사역 선교사들의 선교 편지들을 번역하여 책으로 발간하였다. 당시 편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시대의 상황과 시민들의 생활환경을 엿볼 수 있다. 다음은 Wilson(한국명: 우월순) 선교사가 쓴 편지의 내용의 일부분이다. 여기에서 1918년 당시 조선의 공중위생과 위생설비 등을 짐작해볼 수 있다.

… 바닥에 꽂지가 있는 휘발유통을 선반에 올려놓고 따듯한 물을 채워 놓으면 가장 위생적인 목욕을 할 수 있는 훌륭한 시설이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만든 샤워기 물통을 성경교실 강의를 마친 다음에 조선인들에게 돈을 받고 팝니다. 이 사람들이 청결을 유지하는 것을 배울 수만 있다면 나병이 근절될 수 있겠다는 것이 저의 소견이며, 끔찍한 피부병과 기타 질병들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광주기독병원선교회 2015, 39-40)

뿐만 아니라 사진 자료 중 광주의 옛 모습이 담긴 전경은 1900년대 초와 지금을 비교함으로서 광주의 변화상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누에고치를 따고 있는 광주이일학교생들의 사진은 당시의 교육 상황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그림 12>참조).



<그림 12> 1905년 양림동 일대와 누에고치를 따고 있는 광주이일학교생들

이와 함께 개화기는 물론 일본 강점기 때 이 지역에 계몽 운동을 짹트게 했던 초기 선교사들의 활동상이 여실히 드러난다. 또한 사진자료에서는 교회 건축 과정은 물론 당시 신도들의 모습과 교육 활동 등을 꼼꼼히 담아 당시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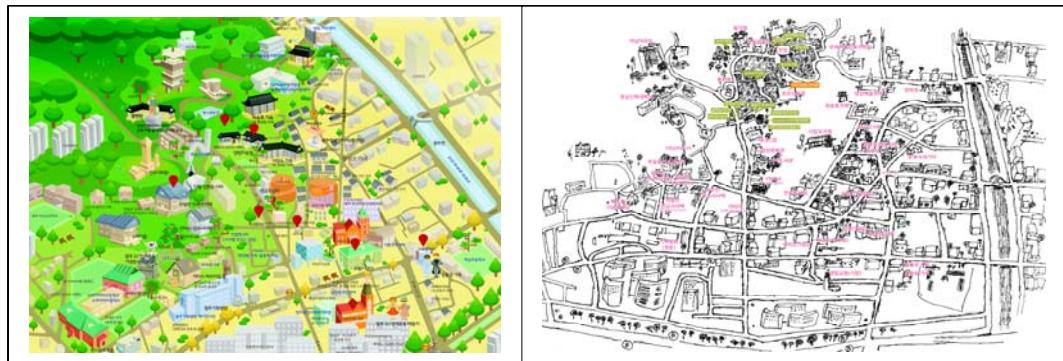
나. 도시 이미지 및 브랜드 구축

사회가 다변화되고 소비자의 관광욕구가 변하면서 관광목적지의 선택도 관광지, 리조트 중심에서 오지, 농촌, 도시까지 다양해지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각 도시의 지자체들

은 도시 축제의 개발 및 운영에 예산을 확대하여 다양한 도시 관광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 관광 활성화 지원 사업은 명확한 목적성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무엇인지 도시의 가치가 나타나는 도시 브랜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이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양림동에는 60~70년대 골목길과 전통 가옥, 그리고 기독교 역사 문화자원과 근대 양식 건축물, 양림 숲에 이르기까지 충분히 사람들의 발길을 끌어들일 수 있는 자원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양림동이 가진 고유한 자원들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시설 조성에만 예산이 투입되어 오히려 양림동의 정체성이 모호해지고 있다. 이에 양림동만이 가지고 있는 독창적인 문화 유산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서구의 건축물과 한국 전통 건축물이 같은 지역 내에 존재하는 것은 다른 문화에 대해 배타적이지 않고 포용했던 지역의 정체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요소는 도시 이미지 및 브랜드로서 관광 사업에 매력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양림동은 이러한 문화유산들을 탐방할 수 있는 문화지도를 만들고 배포하고 있다. 하지만 양림동 지역의 문화적 다양성을 간과하고 특정 종교에 편향 된 관점에서 관광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근대 문화유산뿐만 아니라 대상을 확장하여 역사, 문학, 생태 체험 등 스토리와 볼거리를 지니고 있는 지역을 도보코스에 적극적으로 포함시켜야 하며, 양림동 또한 기독교 근대 문화유산에 한정되어 단조로운 지금의 도보코스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그림 13).



<그림 13> 광주 남구 양림동 문화지도

따라서 앞서 생산된 기록을 잘 활용하여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문화지도에 표시된 길 외에 새로운 길을 개발해야 한다. 즉, 점적인 요소로 존재하는 개별적인 관광요소가 아닌 스토리텔링을 토대로 선적인 요소로서 연결시킨다.

이에 양림동 지역의 선교 역사 문화 탐방으로 ‘종교거님길’을 <표 13>와 같이 제시한다.

〈표 13〉 양림동 선교테마 관광코스

이름	코스	내용
종교 거님길	선교기념비-피터슨 선교사 사택터-우월순 선교사 사택-호랑가시나무-커티스메모리얼홀-수피아강당-수피아홀-원스보로우홀-어빈슨 기념관-오웬기념각	근대 선교사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는 길

종교거님길 코스는 선교 기념비, 피터슨 선교사 사택터, 우월순 선교사 사택, 호랑가시나무, 커티스 메모리얼 홀, 수피아 강당, 수피아홀, 원스보로우홀, 어빈슨 기념관, 오웬 기념각이 있어 근대 선교사의 발자취를 느껴볼 수 있다. 또한 광주기독병원은 다양한 선교 기록물과 사진 자료 등과 더불어 역사·의학 자료전시관을 두고 있다. 이 전시관은 개원 100주년이던 2005년에 개관하여 광주기독병원의 역사와 변천하는 의학자료(사진, 문헌, 장비, 기구, 기타 소품)를 전시하고 있다<그림 14>.



〈그림 14〉 광주기독병원 역사·의학자료 전시관과 선교사 관련 박물

이에 선교역사 문화자원과 광주기독병원의 역사·의학자료 전시관을 기반으로 ‘광주 기독교 선교 역사박물관’ 건립을 제안한다. 단순히 사진과 박물전시에 그치지 않고, 100여 년간의 선교 역사 관련 유적과 건축물이 보존되어 있는 양림동의 특성과 연계하여 독립적인 새로운 선교 역사박물관이 되어야 한다. 이 역사박물관은 광주에 처음으로 발을 디딘 선교사들의 사역을 배울 수 있는 역사 교육 시설로도 활용될 수 있으며, 전시실 뿐 아니라 박물관 관람 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실과 관람객과 주민들을 위한 기독교 관련서적 중심의 작은 도서관, 기독교 관련 액세서리류 및 공예품 등을 판매하는 기념품 판매점 등을 구성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도시 이미지 및 브랜드 구축은 양림동 지역의 문화자원을 연계시켜 하나의 컨셉으로 재정비하고 적극적인 브랜딩 전략을 구사하여 근대 문화유산이 가지고 있는 지역과의 관계, 특정인물과의 관계 등의 기록화를 통한 자료들이 그 밑바탕이 될 것이다.

다. 지속가능성 제고

1960년대 이후 급격히 이루어진 도시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하여 도시 내의 녹지가 많이 감소하였고, 산업 활동과 자동차의 증가는 대기오염을 심화시켰다. 인간중심적이고 편리함을 추구하는 도시 조성은 자연과 경관을 도외시하게 되어 무미건조한 도시 환경을 형성하고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이에 도시 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정책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2008년부터 광주의 대표적인 볼거리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2016년 까지 307억 원을 들여 양림 역사 문화 마을 조성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 중에 있다. 현재 사업은 진행되고 있으며, 도로의 포장, 주차장 조성 등이 계획 중이다. 하지만 많은 사업비가 대부분 시설비로만 쓰여 오히려 양림동의 가치와 정체성을 훼손했다는 지적이 많다. 예를 들어, 도보여행을 위한 보행환경의 개선된 것이 없으며, 역사적인 흔적의 관리 보존 등의 정책에 대한 관심과 계획은 시설 건립에 대한 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이를 반영하듯 지역민의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더불어 환경 문제에 대한 의견들이 지역의 소식지와 지역 신문 등에서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 양림동에 대한 역사적 가치와 정신적 자산을 새롭게 조명하고 광주의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 21세기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녹색마을 만들기” 차원에서 몇 가지 제언을 해본다. … 양림동 전통녹색 마을 접근하기 위한 이동수단으로 아시아문화전당에서부터 온라인 전기자동차시스템을 설치하고 전통 녹색마을 주변에 자동차 주차장을 조성하여 모든 방문객이 주차장에서 하차하여 녹색 마을 내에서는 자전거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관광할 수 있도록 자전거 도로 등을 편리하게 조성하였으면 한다. …
(양림동산 2009, 9)

… 양림마을 보호를 위해 활동중인 한 건축사는 “수백억원을 들여 근대 문화유산을 보호하겠다고 해놓고는 되레 옛 가옥을 허물고 그 자리에 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문제지만, 주차난이 심각한 도심에서 나 볼 수 있는 철골로 짓는 게 더 큰 문제”라면서 “옛 정취를 느끼며 둘러보는 것이 양림동의 진맛인데, 그 가치가 없어지게 됐다. 양림동 인근에 (주차장을) 만들고, 조금 걸어오면 되지 않겠느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양림동의 한 주민도 “마을 입구에 철골 주차장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일부 주민이 반대 서명운동을 펼치기로 했다”며 “원점에서 재검토 돼야 하며, 만약 주차장이 불가피하다면 문화마을 이미지와 어울린 친환경 컨셉의 주차장이 건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³⁾

3) 광주일보, “근대 문화유산 보호하겠다더니… 양림역사문화마을에 흥물주차장,” 2014년 3월 12일 기사.

현재 양림동의 도시현황을 살펴보면 양림동지역의 일대 정비 가이드라인을 계획하고 지역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전반적 정비사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민의 도시 정책에 대한 다양한 제언은 의견으로만 그치지 않고, 이를 잘 정리하여 해당 분야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또한 양림동의 역사문화를 종합하여 기록화하여 이를 보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록관이 설립되어야 한다.

IV. 결론

도시재생은 로컬리티를 기반으로 도시에 대한 기록을 수집하고 관리하는 기록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이 연구는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동을 대상으로 기록화 사례를 제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역사와 문화 측면에서 “선교(宣敎)”와 이와 관련된 양림동의 문화를 기반으로 한 기록물의 수집과 생산이 이루어졌다. 수집된 기록물은 단행본 40권, 학위논문 및 학술지 21건, 신문기사 171건, 지역지 92건, 사진자료 1,133건으로 나타났다. 생산된 기록물은 8건(선교 관련 양림동 근대문화유산으로서 오웬 기념각, 수피아 훌, 유월순 선교사 사택, 유진벨 기념관, 원즈버로우 훌, 수피아 강당, 선교 기념비, 선교묘역)으로 명칭, 지역과의 관계, 특정인물 · 소재와의 관계, 기타 특징으로 나타내었다.

둘째, 지역의 발전 측면에서 기록물의 진본성과 신뢰성을 토대로 기록물이 효율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도시 기록화 사례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도시의 역사성을 보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선교 관련 기록물로서 선교사들의 편지를 번역하여 역은 책, 선교와 관련된 학술과 학위논문, 이들의 활동과 그 영향을 보도한 신문과 잡지, 광주의 옛 모습이 담긴 사진 자료 등은 그 당시 시대 상황(1900년대 초)과 시민들의 생활과 교육환경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사료이다. 둘째, 도시이미지 및 브랜드를 구축해야 한다. 양림동 지역의 기독교 역사 문화 자원과 근대양식 건축물 등은 근대 문화유산의 기록물로서 선교 역사 문화 관광산업으로 활용할 수 있다. 셋째, 지속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 1960년대 이후 급격히 이루어진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명암(明暗)은 도시의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에 영향을 주어 도시의 역사적 정체성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이를 지적한 지역민들의 의견과 도시정책에 대한 다양한 제언은 적극적으로 도시발전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 넷째, 기록관 설립이 필요하다. 광주광역시 남구청은 도시 기록화를 위한 주체가 되어야 하고 산재(散在)되어 있는 역사 · 문화적인 기록물을 보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참고문헌

- 강경민. 2012. 말 많던 서울 동대문운동장터. 『한국경제』, 2012.12.11.
- 계기석 외. 2001. 도시정체성(Urban Identity)과 도시발전. 『도시정보』, 229: 3–15.
- 광주기독병원선교회. 2015. 『제중원 편지 1』. 광주: 기독병원.
- 광주남구마을(동)지. 2002. 『양림동』. 광주: 광주남구문화원 .
- 권상구 외. 2014. 『Urban Archives: 창조적 도시재생을 위한 장소의 기록과 기억의 재구성』. 안양시 : 국토연구원.
- 권순명, 이승희. 2009. 지역 아카이빙을 위한 기록화방안 연구. 『기록학연구』, 21: 41–84.
- 권용우, 변병설. 2011. 『도시』. 서울: 아지북스.
- 김영. 2014. 우리나라 도시 관리의 패러다임 변화와 도시재생. 『建築』, 58(6): 12–17.
- 김용웅. 2007. 우리나라 도시재생정책의 추진 현황과 방향. 『한국도시행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1): 5–25.
- 김우영. 2012. 후기 산업시대 문화기반 도시재생 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지』, 13(6): 5–21.
- 설문원. 2011. 디지털 환경에서의 로컬리티 기록화 방법론 연구. 『한국기록학회지』, 11(1): 207–230.
- 『양림동산』. 2009. 광주: 양림사랑봉사회.
- 여진원, 장우권. 2013. 도시아카이브 구축 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7(2): 315–335.
- 여진원, 장우권. 2015. 도시 기록화 구성요소 도출을 위한 실험적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6(4): 575–598.
- 이상준. 2007. 성남시 기성시가지 도시재생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원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 장우진. 2011. 지역성에 기반한 도시재생과 사회적 기업 연계의 기대효과. 『한국지적정보학회지』, 13(1): 129–146.
- 장우진, 문수봉. 2010. “도시재생 참여주체로서 사회적기업의 가능성 – 연계사업 중요도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국지적정보학회지』, 12(2): 45–69.
- 조명호, 추용우. 2010. 『강원도 도시재생 전략』. 춘천: 강원발전연구원.
- 천득염. 2009. 광주 양림동의 근대도시공간적 의미. 『호남문화연구』, 44: 1–32.
- 태오도르 폴 김. 2009. 『사고와 진리에서 태어나는 도시』. 서울: 시대의창.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Cheon, Deuk-Youn. 2009. "A Spatial Meaning of Gwangju Yangrimdong as a Modern City." *The Journal of Honam Area Studies*, 44: 1–32.
- Cho, Myoung-Ho and Chu, Yong-Wook. 2010. *Urban Regeneration Strategy for Gangwon Province*. Chuncheon: Research Institute for Gangwon.
- Jang, Woo-Jin. 2011. "A Study on the Locality-based Urban Renaissance and Social Enterprise Links, and its Expected Effect." *Journal of the Korean Cadastre Information Association*, 13(1): 129–146.
- Jang, Woo-Jin, Moon and Soo-Bong. 2010. "A Study on Possibility of Social Enterprise as a Main Participant in Urban Renaissance –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Importance of Business Links." *Journal of the Korean Cadastre Information Association*, 12(2): 45–69.
- Kang, Kyung-Min. 2012. "Dongdaemun-gu, Seoul, who was a wordy sport market." *Korean Economic*, 2012.12.11.
- Kim, Theodore Paul. 2009. *Sagowa Jinrieseo Taeonaneun Dosi*. Seoul: Sidaewa Chang.
- Kim, Yeong. 2014. "New Paradigm of Urban Management and Urban Regeneration in Korea." *Review of Architecture and Building Science*, 58(6): 12–17.
- Kim, Yong-Ung. 2007. "Status and Direction of Urban Regeneration Policy in Korea." *Proceedings of Korean Urban Management Association Conference*, (2007.11): 5–25.
- Kim, Woo-Young. 2012. "Urban Revitalization Strategy in Post-Industrial Era - Case Study of Urban Redevelopment with Landmark." *Journal of The Urban Design Instiute of Korea*, 13(6): 5–21.
- Kwon, Sang-Ku et al. 2014. *Urban Archives: Reconstruction of the Record of the Creative Place for Urban Regeneration and Memory*. An Wang: Leading National Territory Policy Research for the Well-being of the People.
- Kwon, Soon-Myung and Lee, Seung-Hwi. 2009. "A Study on Documentation Strategy for Archiving Locality."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21: 41–84.
- Kwon, Yong-Woo and Byun, Byung-Seol. 2011. City. Seoul: Agibooks.
- Kye, Ki-Seok et al. 2001. "Urban Identity and Urban Development." *Urban Information*

- Service*, 229: 3–15.
- Lee, Sang-Jun. 2007. *A Study on Urban Regeneration in the Old Section of Seongnam City*. Ph.D. diss. Dept. of Architecture, Kyungwon University.
- Missionaries of Gwangju Christian Hospital. 2015. *Jejungwon a letter 1*. Gwangju: Gwangju Christian Hospital.
- Newsletter of Nam-gu Village(Yanglim-dong). 2002. Gwangju.
- Research Institute for Gwangwon. 2010. *Urban regeneration strategy*. Gangwon Province.
- Seol, Moon-Won. 2011. “A Study on Documenting Locality in Digital Environment.”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32: 3–44.
- Mount, Yanglim. 2009. Gwangju: Voluntary Service Group Love Yangrim.
- Yeo, Jin-Won and Chang, Woo-Kwon. 2013. “A Study on the Urban of Building Direction.”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7(2): 315–335.
- Yeo, Jin-Won and Chang, Woo-Kwon. 2015. “A Pilot Study on the Elements of Urban Documentation.”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6(4): 575–598.